

골프 황제의 화려한 부활 우즈 80승 달성

지난 23일 골프 마니아들은 흥분과 열광, 감동에 빠졌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3·미국)가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가장 뛰어난 30명만 출전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우즈는 압도적인 플레이로 우승컵을 들었다. 3라운드 선두로 나선 45개 대회에서 43번째 우승. 95%를 넘는 그의 역전불허 기록은 PGA 투어 평균 40%를 압도하는 것이다.

우즈는 2013년 4월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PGA 통산 79승을 거둔 이후 5년1개월 만에 짜릿한 우승을 맛봤다. 타이거 우즈의 부활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깨, 무릎, 아킬레스건, 팔꿈치 등의 술한 부상을 극복했지만 2014년 허리 수술은 그의 선수생명을 위협했다. 이후 그는 3차례 더 크고 작은 허리 수술을 받았다.

잠시 돌아왔던 우즈는 짧은 칩샷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형편없는 플레이로 조롱거리가 됐다. 지난해 4월 마스터스에서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난 이제 끝났다."며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 인터뷰에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을 정도만 회복해도 좋겠다."고 할 만큼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한 우즈의 초인적인 의지와 노력이 팬들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우즈는 이제 PGA 투어 통산 최다승(82승·샘 스니드)에 2승 차로 바짝 다가섰다. 스니드가 47세에 80승을 거둔 사실을 감안하면 우즈의 신기록 돌파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골프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1930~1960년대에 활약한 샘 스니드의 우승엔 순도가 떨어지는 대회가 많다는 사실을 밝히며 "우즈는 이미 샘을 넘어선 최고선수"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필드 복귀 당시 1199위였던 그의 세계랭킹은 13위로 뛰었다. 최종라운드 마지막 홀에 우즈를 따라붙던 구름관중은 미국프로풋볼(NFL) 등 경쟁 종목이 시청률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투어 챔피언십 TV 시청률은 5.21%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우즈에게 남은 목표는 4승 차로 다가선 잭 니클라우스(미국)의 메이저 대회 18승 기록이다. 미국 스포츠베팅업체는 샘 스니드가 82승을 거둔 52세 이전에 우즈가 잭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최다승을 넘어설 것이라는데 배당률 1/25(1달러 걸고 이기면 25달러 배당)를 책정하며 팬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성사될까

서울올림픽을 치른 지 30년이 흐른 2018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UN총회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공식 제안했다. 일찌감치 협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합의문에 "올림픽 공동유치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4년마다 열리는 하계올림픽의 경우 2020년 도쿄, 이후 파리(2024년)·LA(2028년)까지 대회장소가 결정됐다. 당초 한국에서도 부산이 2028년 올림픽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IOC가 지난해 2024년과 2028년 개최지를 한꺼번에 결정하면서 올림픽 개최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IOC는 대회 7년 전에 총회를 열고 차기 개최도시를 정해왔다.

남북이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에 뜻을 모은 건, 올해 초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급변했듯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 정신을 보여주는 데 상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반도와 주변국의 외교관계는 얼어붙었지만 올해 초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실제 다음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 정부는 서울 등 관련 지자체의 의사를 확인한 후 북한, IOC 등과 꾸준히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남북한을 비롯해 독일 뒤셀도르프, 호주 브리즈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차 규모가 커지고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올림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벤트를 간소화하며 여러 국가 도시들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IOC의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 국가에서 3번 연속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올림픽 붐을 유도하는데 기여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등이 연속해서 열리게 된 것이다. 베이징은 지난 2008년 이미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었다. 특히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와 미국 LA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어서 2032년 하계올림픽은 아시아 국가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은 아시아 국가들의 올림픽 붐을 타고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1988 서울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3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PPO 환자분, CASH 환자분들을 위한 효과적인

김진세 내과 종합검진센터

■ 기본검진플랜

- 1회 전문의와 상담(내과/스포츠의학과/통증전문의)
- 심전도 검사 (EKG)
-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빈혈검사
- 전립선, 여성호르몬 검사
- 소변 검사



Chin Se Kim M.D.

- ◆ 미국내과보도전문의
- ◆ 미국스포츠의학보도전문의
- ◆ 미국통증의학보도전문의

최첨단 C-Arm와 고성능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치료

■ 종합검진플랜 1

기본종합검진 + 상,하복부 초음파(ABDOMINAL & PELVIC ULTRASOUND)

■ 종합검진플랜 2

기본종합검진 + 상,하복부 초음파 + 위장내시경(EGD)

■ 종합검진플랜 3

기본종합검진 + 상,하복부 초음파 + 위장내시경(EGD) + 대장내시경(COLONOSCOPY)

- 위내시경 • 관절수술 / 골절수술 / 척추수술
- 대장내시경 • 각종 통증수술

* 내시경 비용은 내시경 전문의사, 내시경센터, 마취의사 비용뿐만 아니라 Helicobacter 검사 외 모든 용종(POLYP)제거 비용을 포함합니다.
 * 내시경시 마취과 전문의 하에 무통수면마취 합니다.
 * 위내시경 / 장내시경은 미국 소화기내과 및 내시경 전문의께서 하십니다.

- ▶ UNICARE ENDOSCOPY / SURGERY CENTER
- ▶ Orthopedic/Podiatry/Plastic/Hand & General Surgery
- ▶ 줄기세포(Stem Cell)
- ▶ 각종 수술 상담

오바마케어 취급
 각종 HMO·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 보험/종합 혈액 검사

문의전화 **714-520-0809**
 1736 Medical Center Drive #B Anaheim, CA 92801

